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승효상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도시라고 한다. 인류의 문화에 어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도시가 담당했다고 하는 이 말의 전제에는 도시는 자연적으로 태동된 게 아니라 인공적인 것이며 또한 언제든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만큼 도시는 매력적이다. 도시에는 수많은 기회와 동기가 있으며 욕망과 기억이 교차하고 성공과 좌절이 순간마다 존재하여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고도 했다. 또한 도시는 생활

취운 말로는 시티는 소프트웨어고 어반은 하드웨어다. 그런데 이 건물들의 집합인 어반은 만들기가 쉬운 반면에, 시티는 대단히 어렵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들이 각개의 특출한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규칙에 합의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이를 이루기는 여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세종시가 그 좋은 예다. 아직도 여러 문제가 잔존해 있지만, 세종시가 왜 그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어 여론을 사분오열 시켰을까. 정치적 이해의 논리가 다분히 있긴 하여도, 아마도 우리의 도시 만들기 역사상 최초로 어떤 사회를 만들 것

문제는 물리적 환경뿐인 이런 '어반'에서 사람이 살게 되면서 그 '어반'이 가정하 어떤 사회적 모습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그 가정된 사회라는 게 불행하게도 이미 서구에서 실패로 끝났던 마스터플랜-통계적 숫자를 근거로 평균적 인간을 목표로 한 계획적이고 분과적이며 효율과 기능만이 중시되는 거주적 기계로서의 도시이거나 거주자들은 죄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공동체 속에 삶을 살게 되고 만다. 그렇다면, 어딜 가도 똑같은 우리 시대의 신도시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사회를 형성한다는 말에서 지방의 정체성 찾기란 지극히 난감한 일이다.

부동산 공동체

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종시의 인구 40만은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그리 큰 숫자가 못 된다. 50만 명의 분당을 불과 4.5년 만에 만들었으며, 일산이나 광천, 산본 같은 수십만 명이 사는 도시를 도깨비 방망이 두드러듯 똑똑똑 딱 만들어 온 게 우리의 실력이다. 이런 천편일률적 신도시들이 어떤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한 결과로 건설된다면 이 속도는 완벽히 불가능한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논리로 따지면 이들 신도시들은 죄다 물리적 환경만 구축한 '어반'일 뿐이며 우리가 살고자 하는 '시티'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이 그냥 주어진 것이다.

도대체 지난 수십 년간 전 국토에 걸쳐 유행처럼 건설된 그 한 가지 사회의 정체는 무엇일까. 무말할 나위 없이 바로 부동산 공동체이다. 자기 스스로의 사회적 인간상을 형성하는 기반인 거주를 늘 돈으로 환산하고 사회적 지위를 부동산으로 파악하여 이를 획득하기 위해 이리저리 떠돌고 내몰리는 유희목적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도시가 부동산 공동체의 사회이다. 그런 때들이들의 사회에 문화가 정착될 리가 만무하다. 물물교환의 성격을 나타내는 도시의 어원에 집착하여 부동산만 교환하는 이 땅 우리의 도시가 일만 년 전의 제리코나 차탈튀크보다 더 못한 도시라면 내가 너무 비판적인가.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총감독 이로재 대표>

체와 같다. 항상 성장과 퇴조를 거듭하면서 변화하는 존재여서, 도시의 완성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불락을 통해 완성된다고 했는가. 도시를 의미하는 영어에는 시티(city)와 어반(urban)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같이 도시를 뜻하지만 그 내용이 사뭇 다르다. 그리스어 civitas에 근거하는 시티는 일종의 사회적 성격이 강한 반면, urbs에 어원을 가진 어반은 그 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서로 모르는 이들이 모여 공동체적 목적을 공유하는 어떤 사회와 그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적 구성이 합쳐져 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시설

등록금에 취업난까지 지방대생의 '이중고'

21C 광주·전남대학생연합회(광전대련)가 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조 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즉각적인 반값 등록금 이행과 청년실업 해결 등을 촉구하고 오는 10일 예정된 동시다발 전국 대학생 동맹휴업 참여 서명운동을 벌였다. 반값 등록금은 이제 대학을 떠나 국가적 정책이 됐다. 이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국민경제 부담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나타난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국립·사립 모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최근 5년간(2006~2010년)만 따져도 물가는 16% 오른 데 비해 국·공립대 등록금은 30.2%, 사립대는 25.3%나 올랐다. 대학등록금은 1000만 원대까지 치솟았고 여기에 월세, 책값, 밥값, 교통비 등을 다 합치면 4년간 1억 원에 육박

한다고 한다.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등록금 부담은 세계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지방대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고통은 서울보다 훨씬 더하다. 지방대 학생이 서울의 대학생보다 등록금 대출을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대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계가 그만큼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렇게 빚으로 대학을 나와도 지방대생의 취업은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등록금 급등과 취업난이라는 '이중고'에 허덕이는 지방대생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등록금과 취업은 지방대생과 학부모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만큼은 반값 등록금이든 취업할당제든 지방대생에게 활로를 반드시 열어줘야 할 것이다.

강력법 활개, 손 놓은 경찰, 시민은 불안하다

최근 들어 광주 시내 곳곳에서 '민생치안 부재' 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의 치안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광주경찰이 지난달 25일부터 '절도·강도·성폭력 소탕 100일 특별 단속'에 나섰지만 피해 강력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치안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과 5일, 괴한이 주택가에 침입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40대 여성가도 찍어보아 관절 연골이 완전히 닳아진 것을 확인하고 인공 관절을 권유했어야 적합한 치료법의 선택이 것이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무리하게 활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심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 초기에는 대부분 수술보다는 약, 물리치료, 주사, 연골 윤활 주사, 무신과질 호르몬 주사 등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그러나 초기나 중기일 지라도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이나 절골술을 시행한다. 특히 6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초, 중기 관절염에서 절골술을 시행해주면서 연골재생술을 시행해주면 대단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관절 연골이 완전히 닳아져 버린 말기에는 인공 관절을 시행해야 한다. <세계로365병원 원장>

거여 열을 올리고 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치안력 부재에 따라 주민들은 불안하기 그지 없다.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경찰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생치안'을 외치고 있으나 이 모두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무엇보다 민생치안과 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경찰 인력을 범죄 취약 지역에 집중 증강 배치하는 한편, 범죄 다발지역에는 순찰 활동을 대거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서둘러 범인을 검거하지 않으면 사건의 재발은 불 보듯 뻔하다. 행정당국도 범죄 시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경찰과 긴밀한 공조에 나서서 민생치안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갖가지 강력범죄로 인해 지역민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민생치안이 구호로만 그친다면 치안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의료 칼럼



정재훈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뼈를 덮고 있는 물렁뼈이다. 이 물렁뼈의 공식적인 명칭은 관절 연골이다. 관절이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인대일지 모르지만, 관절 고유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관절 연골이 건강해야 한다. 관절 연골이 닳아지거나 손상돼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 퇴행성 관절염은 한번 생기면 완치하기 어렵다. 완치가 어려운 이유는 성인의 관절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퇴행성 관절염을 완치할 수는 없지만 병

의 시기에 맞게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 치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고통과 지장의 정도가 틀리다. 40세가 넘어서 무릎이 아파지면 퇴행성관절염을 염두에 두고 진찰을 받아 보아야 한다. 대개는 활동 중이나 활동 후에 무릎의 안쪽에 통증이 생긴다. 장시간 걷거나 활동을 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진단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퇴행성관절염이 있으면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의 가장 자리에 소의 뼈처럼 뼈가 자라나오고, 관절면을 이루고 있는 뼈가 정상보다 더 하얗게 보인다. 두 가지 소견 모두 관절 연골이 닳아져 남아지니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이 감소돼 뼈에 압박력이 증가한 결과 뼈의 생성이 촉진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관절 간격이 좁아져 보이는 소견이 보이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

것 또한 관절 연골이 닳아져 위 아래 두 개의 뼈가 달라붙어 가꺼워 보이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관절염의 심한 정도는 관절 간격의 좁아진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이것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서 체중을 부하해서 양쪽 무릎을 비교해서 찍어보아야 한다. 서서 찍지 않으면 실제로는 연골이 많이 닳아져 심한 퇴행성 관절염인데도 관절 간격이 많이 벌어져서 체로 사진이 촬영되어 덜 심한 것으로 잘못 진단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기에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헛수고만 하고 치료 효과는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서서 체중을 부하하면서 무릎을 45도 구부리고 찍어보아야 한다. 서서 무릎을 펴고 찍어서는 관절 간격이 아직 남아 있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지 않게 보이는데 45도 구부리고 찍은 사진에서는 관절 간격이 전혀 없이 나와

아주 심한 관절염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서서 무릎을 편 사진만 보고 덜 닳아져서 인공 관절을 할 때가 아니라도 약간 계속 주고 있었다면 바람직한 치료를 하었다고 볼 수 없다. 45도 구부린 사진을 추가로 찍어보아 관절 연골이 완전히 닳아진 것을 확인하고 인공 관절을 권유했어야 적합한 치료법의 선택이 것이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무리하게 활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심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 초기에는 대부분 수술보다는 약, 물리치료, 주사, 연골 윤활 주사, 무신과질 호르몬 주사 등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그러나 초기나 중기일 지라도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이나 절골술을 시행한다. 특히 6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초, 중기 관절염에서 절골술을 시행해주면서 연골재생술을 시행해주면 대단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관절 연골이 완전히 닳아져 버린 말기에는 인공 관절을 시행해야 한다. <세계로365병원 원장>

기고



김용환

이번 우리 광주시 투자유치단의 유럽 방문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강운태시장을 비롯한 우리 투자유치단은 첨단 광산업의 유치 및 시장개척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9박 11일의 일정으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을 방문했다. 그 결과 투자 MOU 3건에 2억6000만달러의 수출 MOU 3건에 8200만달러 등 총 12건의 MOU에 2억8800만달러 규모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구체적으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대형 LED 스크린 제조업체인 이마고(IMAGO)사와 5000만달러의 투자협정을 체결하

광주시 투자유치와 장보고 정신

고, 바르셀로나시와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오는 10월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환경협력약(UEA)에 참석하도록 했으며 특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 프로젝트인 '어반폴라'가 유럽에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탈리아 파도바에서는 인트라(Intrac)사로부터 아르네코리아 1공장에 콘도라 제조시설 설립을 위한 6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베니스에서는 우리시 소재기업인 TD엔지니어링사 생산제품인 태양광 LED 유도등으로 베니스의 8개 섬의 뱃길을 연결하는 '베니스 뱃길 LED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또 독일 드레스덴에서는 OLED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광학마이크로연구소가 광주에 최첨단 OLED 생산기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1억4000만유로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물론 이 같은 성과가 이번에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 4월 미국 방문 때는 LA에서 LED 분야 단일 주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52억5000만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하고 LA 클린에너지 도시조성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하였으며, 포틀랜드에서는 연료전지의 세계적인 기업인 클린에너지파워사와 광주공강설립 MOU를 체결하는 등 수출과 투자 MOU 11건에 54억4000만달러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우리 광주시가 이처럼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배경에는 어김없이 민선5기의 선장인 강운태시장의 열정과 광주시 공무원들의 정성이 숨어있다. 어려운 협상의 현장에서 때로는 차분한 논리로 설득하고 때로는 격정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은 협상 상대를 하여금 광주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애정을 갖게 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합의에 도달

하게 만들었다. 민선5기가 시작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5번의 해외 활동을 통해 투자 MOU 37건에 6조1000억원대의 외국자본이 유치되었으며, 3개사의 91억원은 이미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시장을 향해 눈을 돌리고, 해외의 유망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광주시의 투자유치는 그 옛날 '장보고의 정신'과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장보고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세계인으로서 모험심과 개척정신, 용맹성, 포용력, 뛰어난 설득력과 지도력, 국제관계와 시대적 흐름을 읽는 통찰력 등 세계경영인으로서의 덕목을 유감없이 발휘한 지도자다. 이제 민선5기가 2년차에 접어들게 된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지역의 경제계 발전과 풍요로움이 기대되는 이때, 세계 속의 광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매진한다면 멀지 않아 광주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광주시 경제산업정책실장·행정학박사>

無等鼓

게리 하트, 빌 클린턴, 타이거 우즈,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아널드 슈워제네가... 이들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바로 '섹스 스캔들'로 인해 하루 아침에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이다.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이언 깁스가 친동생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의 성 추행 사건이 터진 후 사흘만에 아널드 슈워제네가 전 미 국무장관이자 주지사 가정부와 혼외정자로 아이를 낳았다고 고백해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 넣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경우 호텔 여중원에게 대한 성추행 기도 혐의로 연행됐다.

대통령은 책임 당시 백악관 인터넷 스캔들로 명성을 한 번에 날려 버렸다. 이밖에 게리 하트, 존 에드워즈, 뉴트 깁고리치 등도 여성 문제로 대권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 국내에서도 신정아를 비롯해 중국 외교관의 상하의 스캔들과 장자연 스캔들 등 성적 일탈은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광범한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 자체의 속성과 정치인들의 빛나



성공 정치인들의 빛나

정치인, 예술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섹스 스캔들은 이례적이지 않다. 특히 정치인들의 경우 여성문제로 꿈을 접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 댄서와 부적절한 관계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있고, 1990년대 빌 클린턴 전 미국

자신도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고 지적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다 보면 법을 초월한 존재 같은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무소불위의 힘을 잘못 쓰면 추락은 한 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 lion@kwangju.co.kr

자원낭비 막기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하자

최근 대부분의 화장실에 가면 손을 씻은 뒤 한 장씩 뽑아 쓸 수 있는 휴지가 비치돼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자원낭비다. 때문에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나서 손수건 쓰기 운동을 펼쳐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도 수년 전까지는 손을 씻기 위해 양치한 후에 별생각 없이 휴지를 사용했다. 하

지만, 생각을 바꾼 뒤부터는 항상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했지만 이제는 매번 종이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했다는 뿌듯한 기분마저 든다. 대부분 집안 장롱이나 서랍 속에 손수건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손수건을 넣어 두고 있을지

도 모른다. 단지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또 젖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두기 싫어서 습관처럼 종이를 뽑아 쓴다. 그것도 한 장도 아닌 두 장, 석 장씩... 나로 인해 지구상의 나무 한 그루, 열 그루가 베어지는 것은 생각해보자. 모든 건물 화장실 세면대에 간단한 배경설명과 함께 손수건을 쓰라는 글을 붙여보자. 그리고 우리 모두 주머니에 손수건 한 장씩 넣어 다니자. 조만간 더욱 깨끗해질 지구를 생각해보자. ▲이문미·광주시 서구 양3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선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